

HALOHALO IN DEC.



목차

● 태풍 Tisoy _그리고 일주일간의 정전

데이케어센터 마무리 _크리스마스 파티 ●

● 루피 홈스테이 마무리 _Brgy Fiesta, Clark 생일

눈병 _손 소독제 도핑도핑 ●

● Atti Project _시작은 반이 아니었다

크리스마스 파티 _한 해의 마무리 ●

태풍 Tisoy 그리고 일주일간의 정전



태풍 Tisoy

태풍 Tisoy로 인해 일주일간의 정전을 겪은 우리 팀. 저녁이 되면 촛불을 켜고, 어둠 속에서 미리 사둔 비상식량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손전등 빛에 의존해 샤워를 해야 했고, 시끄러운 비바람 소리에 놀라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민우 단원과 민수 단원은 철사로 쌀포대를 바느질 하여 뚫린 창문을 메우기도 했어요!



태풍 Tisoy



이렇게 나름대로 태풍에 대비하고, 또 팀원끼리 서로 의지하며 이겨내
자 했는데... 대범하게도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해, 민수 단원의 pmp와
지갑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란 우리 팀은 이후 보안과 안
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태풍 Tisoy



한바탕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나가 시티의 거리는 황폐했어요. 거리에는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쓰레기들과 나뭇잎들이 섞여 둥굴어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졸리비' 캐릭터가 달린 간판이 부서져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나무 갑판으로 고정해두지 않은 가게 창문은 깨지기도 했답니다 :(...

태풍 Tisoy

이번에 필리핀을 지나간 태풍 Tisoy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Brgy Lupi Fiesta 기간 중에 계획되어 있던 zone competition이 취소되었고, Atti project인 도서관 공사는 지연되었으며, day care center 수업이 취소되어 기획한 활동도 못하고, 시그널이 잡히지 않아 가족들에게 생존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캔굿(통조림)과 같은 식품으로 버티는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태풍 Tisoy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한동안 정전은 계속되었고, 우리 팀은 안전상의 이유로 홈스테이 지역인 루피에 갈 수 없었어요. 홈스테이 가족들과 데이케어 센터 아이들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어 답답했죠. 오랜만에 루피로 향하는 길에 논과 밭이 물에 잠기고, 전봇대가 쓰러져 있고, 지대가 낮은 곳의 집들이 침수되어 있는 것을 보니 걱정은 배가 되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루피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Atti Project가 진행될 건물 또한 큰 피해가 없어, 이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태풍 Tisoy 그리고 일주일간의 정전

반성할 점: 나가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문단속에 소홀해짐.

문제 발생: 태풍으로 인한 정전 기간동안, 도난 사건 발생.

해결 과정: 현지 코디밋 한국 ymca에 이 상황을 알림. 그러나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음.

결론: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개인 소지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임.

데이케어센터 마무리



데이케어센터 마무리



루피 홈스테이 기간 동안 우리 팀의 주된 활동은 Day Care Center 교육 보조였어요. 글씨 쓰기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뛰놀기도 하며 아이들과 친해진 우리 팀원들은 아이들과 헤어질 날이 다가오자 벌써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마무리를 위해 우리 팀은 더욱 열심히 아이들과의 크리스마스 활동을 준비했어요.

데이케어센터 마무리



데이케어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높이 뛰어 간식봉지 잡기, 의자 빼기 놀이, 탭탭 후레이, Bring Me, 숫자대로 모이기 등등 다양한 놀이들이 있었구요. 신나게 놀이에 참여한 후,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미리 준비해주신 스파게티, 빵과 pancit 요리, 마시멜로 꼬치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데이케어센터 마무리

파티가 끝난 후에도 아이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아쉬웠던 우리 할로할로팀이었어요. 장식용 풍선을 가지고 아이들과 장난을 치기도 하고, 댄스 컴페티션 때 찾던 춤을 함께 추며 아이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장식했습니다.



데이케어센터 마무리

헤어지는 날인 줄도 모른 채 티없이 해맑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루피 홈스테이 마무리



루피 홈스테이 마무리



10월부터 시작된 우리 팀의 루피 홈스테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한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홈스테이 가족을 비롯한 루피 주민들과 가까워지고 나니 어느 새 헤어질 날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비록 홈스테이는 12월 둘째 주로 마무리 되었지만, 아띠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고, 바랑가이 피에스타와 크리스마스 파티 등이 남아 있으니 잠시 작별 인사는 미루어 두기로 했습니다.

루피 홈스테이 마무리

12월은 유난히 축제가 많은 달이었어요. 바랑가이 루피 피에스타도 그 중 하나였어요. 축제 기간동안 Chloe(가형 단원)와 Angel(은진 단원)의 홈스테이 집에서 뒷마당에 기르던 새끼돼지를 잡아 각종 돼지고기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축제날 저녁에는 Miss & Mr. Lupi 대회가 열리기도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복장을 맞춰 입은 학생들의 행진도 있었답니다!



루피 홈스테이 마무리



바랑가이 피에스타 다음 날인 12월 13일은 Chloe와 Angel의 홈스테이 집 막내 Clark의 생일이었어요! Ate Sara와 Kuya Melvin이 스파게티와 수만(쌀로 만든 쫄면)과 달달한 디저트, 치즈 룸빠아(튀김), 참포라도(우유 푸딩), 뽕싯(얇은 라면)을 푸짐하게 준비하셔서 친척들과 옆집 가족들까지 모두 배부르게 즐기며 Clark의 생일을 축하해줄 수 있었어요. 생일 주인공인 Clark은 옆에 선물들이 가득 놓인 줄도 모른 채 꿈나라로 가 있네요:)

루피 홈스테이 마무리 소감

민우: 눈병 때문에 축제를 즐기지 못해 아쉬웠다.

민수: Nannay가 마닐라에 계셔서 우리가 루피에 가도 계시지 않아 인사를 드리지 못해 아쉬웠다.

가형: 10월에 적응을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홈스테이 가족들이 주는 사랑과 에너지를 느낄 수 없었는데, 끝나가는 마당에 그런 정을 너무 많이 느껴버려서 아쉬움도 남고 고마움도 더 큰 것 같아요.

루피 홈스테이 마무리 소감

수아: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우리 집 Nannay랑 Ate Sara랑 우리 홈스테이 하는 동안 어땠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언제든지 돌아와도 좋다, 언제든지 있을 동안 찾아와도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파티를 할 줄 알고 간 거라 나는 그런 걸 준비 못해서 되게 아쉬웠고, 좀 더 깔끔한 마무리를 하지 못해 아쉬웠다. 그래도 차라리 미련이 남는 결말이 나은 것 같다.

은진: 12월 내내 많은 일이 있었는데, Ate Sara의 따뜻한 정으로 모든 것이 관참아졌던 것 같아요.

눈병 _손소독제 도핑도핑



눈병

데이케어 센터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어요. 민수 단원의 눈이 빨강게 퉁퉁 부어올르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이들에게서 눈병이 옮은 민수 단원을 첫 주자로 민우 단원, 수아 단원이 차례로 눈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나머지 팀원들에게 옮길세라 하루에도 열 번도 더 손소독제를 바르고, 노트북도 따로 사용하고, 이불 빨래도 했지요.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니 모두 말끔히 나아갔답니다☺



눈병감염자 소감 (감염 순)

민수 단원: 건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구요. 개인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타국에서 병에 걸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우 단원: 민수...가 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같은 침대를 쓰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약간 하고 있었고. 그래도 평소에 약국 위치를 잘 보아둔 덕에 효과가 좋은 약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눈병감염자 소감 (감염 순)

수아 단원: 나가로 격리되고 나서, 루피에서 큰 작업이 있었는데 참여하지 못해 아쉽고, 그나마 제일 약한 증세를 보였어서 다행이었다. 늦게 걸렸지만 비슷하게 나아서 장기적인 피해자가 없었다. 발병지인 루피에서는 약이 있지도 않았고... 나가에서도 약국 다섯 개를 돌아서 겨우 약을 살 수 있었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Atti Project

_시작은 반이 아니었다



Atti Project



태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아띠 프로젝트에 착수했어요. 도서관으로 변신할 건물을 찾아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버젯을 가지고 공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시작했답니다.

Atti Project

천장을 보수하는 데 쓰일 plywood를 나르는 모습이에요. 현지 코디 Rezty의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운반비를 아낄 수 있었답니다. 목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노동자들 뿐 아니라, 바랑가이 관계자들도 우리의 프로젝트를 위해 발벗고 나서주셨어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우리 할로할로팀은 두 팔 걷어 붙이고 롤러를 챙겨 페인트 작업에 동참했답니다!!



Atti Project

더운 날씨에 땀은 흐르고, 페인트 냄새는 강하고, 옷과 손에 묻은 페인트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흘린 땀 덕분에 점점 깨끗하게 변해가는 건물을 보니 뿌듯했답니다. ... 그런데... 공사가 진행된 지 4일차,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목수가 갑자기 자신들의 일은 끝이 났다! 하고 주장한 것인데요.. 내부 페인팅은 물론 전선 배치, 전구 및 선풍기 설치, 의자 겸용 책상 사포질 및 색 입히기 작업 등 끝나지 않은 일은 태산이었기에 우리 팀은 멘붕에 빠지고 말았어요.



Atti Project

의사소통의 문제였던 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오해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임금 문제는 우선 바랑가이 캡틴 및 현지 코디들을 포함한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잠시 보류해두고, 남은 공사 일을 우리 팀원들 스스로 해내기로 했습니다. 일한 뒤 간식으로 사먹은 바나나 튀김과 고구마 튀김, 탄산 음료는 정말 꿀맛이었답니다!!



Atti Project

땀흘린 노력의 결과, 도서관 건물은 보수가 완료될 수 있었어요. 이전 설문 조사로 선정된 도서관 이름을 건물 외벽에 페인팅하고, 도서관의 핵심인 책과 책장, 의자와 책상을 들인 후, 오픈할 일정만 남았네요! 좀 더 좋은 책을 구입하기 위해 서점에 들러 하나하나 살펴보며 고른 책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도난 방지 및 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넘버링 작업을 했습니다!



Atti Project _시작은 반이 아니었다

반성할 점: 목수에게 일을 맡길 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문서화하거나 구체화하여 전달하지 않은 점.

발생한 문제점: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일을 중단.

해결 과정: 우리 팀원들과 바랑가이가 함께 남은 공사 일을 마무리 함. 현지 코디에게 알렸으나 소통 불가로 인해 문제 해결이 어려움. 한국 ymca에 알리고 조언을 구함. 추가적인 임금 지불은 하지 않기로 함.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발생 등 피해 발생 시 팀원들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론: 목수의 파업 선언 이후 함께 일한 노동자들에게만 임금을 지불하기로 결정.

크리스마스

이거 선물
(선물 내용은
유튜브에
서 확인하세
요!)

이거
와인

이거 케
이크



크리스마스



필리핀에는 총 4개월의 'ber month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동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집을 꾸민답니다. 이렇게 큰 행사인 크리스마스 날, 우리 할로할로 팀원들은 로빈슨 몰에 가서 선물 교환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서로에게 비밀로 하려고 요리조리 숨기고 퐁퐁 싸매어 집으로 가져왔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9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적응하고, 소통하고, 일한 우리 팀은 케이크와 와인,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어요. 오랜만에 팀원들이 다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떠니 기분이 좋았어요 :)



크리스마스

폭죽 소리와 함께한 2020년 1월 1일 자정이 지났어요. 우리들은 ymca 오피스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선물 교환식을 하고, 게임을 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프로젝트도 끝나지 않았고, 영상 만들기, 보고서 작성하기, 개인 에세이 쓰기 등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있지만 남은 한 달도 힘내기로 했어요!



남은 한 달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외전 1. Sam & Patrick



싸운 거 아님. 절대 아님! 진. 짜. 아. 님. (본인 피셜)



외전 2. Liza & Angel & Chloe



.... 어쩔든 아님.



외전 3. 민수비 시리즈



오늘도 민수비는 행복합니다.
그에게는 무한도전이 있으니깐요.

